



페터 플리트너, <인체 알파벳>
1532년, 빈 알베르티나
10×17cm

르네상스 미술론을 쓴 알베르티는 화가의 배움이 글쓰기를 처음 배우는 어린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은 우선 철자를 하나씩 떼어놓고 암기한 다음 음절을 만들고 문장을 짓는데, 배움의 첫걸음에 들어선 화가도 이와 같이 제일 먼저 윤곽선 소묘를 정확히 익히고 그 다음에 각각의 지체와 재현 대상의 생김새를 관찰해 제각기 연결시켜서 그려나가는 숙련의 순서를 밟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철자공부와 인체소묘의 회화적 직유

뉴른베르크 화가 플리트너는 르네상스 회화론이 나온 지 1백년이 지난 다음 철자 공부와 인체소묘에 관한 수사적 은유를 회화적 직유로 바꿔 재현했다. 인간은 여기서 해석주체가면서 해석 대상이다. 예술가도, 모델도, 그림을 바라보고 읽어내는 관찰자도 모두 인간이기 때문이다. 작품이 나온 시기는 16세기 초, 자연을 살피고 읊기는 화가의 매끄러운 손재간보다 섬광처럼 머리를 스치는 천재적 착상이 예술적 평가의 기준이 됐던 매너리즘기였다. 플리트너의 그림을 본 자는 자연과 인위, 예술의 묵은 전통과 위협스런 전위를 넘나드는 소묘예술의 대담무쌍한 지적 도전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것이다.

고대 건축가 비트루비우스는 인체 비례를 알지 못하면 신전건축을 설계할 수 없다고 말한다.

“자연은 인체의 전체와 지체 사이에 비례관계를 세워뒀기 때문에 옛 사람들은 건축을 실행하면서 건축물의 전체와 지체 사이의 적절한 균제 비례를 정확히 관찰했고(…) 고대의 위대한 화가와 조각가들은 인체비례를 주의 깊게 연구함으로써 위대하고 무한한 명성을 획득했으니 이

처럼 신전의 전체와 지체 사이에는 균제비례를 세워야 한다.”

요컨대 인체에 새겨진 비밀스런 창조의 문법을 들춰 신들의 거처를 짓는 신성한 역사에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도리아식 신전의 원주비례는 남성인체를, 이오니아 신전의 원주비례는 여성인체를 모범으로 삼을 때 헤라클레스와 마르스, 그리고 아프로디테와 헤라의 신격에 제각기 부응한다고 봤다. 그러나 플리트너는 비트루비우스를 다르게 읽었다.

인간들로 이뤄진 신비로운 책

그의 그림에서는 소년에서 노년까지 인간의 삶이 그리는 움직임의 궤적이 철자를 이룬다. 혼자서 혹은 여럿이, 알몸으로 혹은 옷을 걸치고, 몸을 구부리거나 뻗어서 만들어 보이는 기괴한 사지오체의 동작은 화가의 붓 끝에서 자의적인 기록과 소통의 요긴한 수단으로 바뀐다. 비트루비우스의 신전건축론이 인체와 건축의 비례적 유비를 전제한다면, 플리트너의 알파벳은 건축화된 인체 소묘의 가치를 획득한다. 인체는 의미체의 주관적 감성에서 의미소의 객관적 과학으로 발길을 틀었다. 비례의 기준에서 소묘의 척도로 변신했다. 비트루비우스의 자연이 인간을 빚어냈다면, 플리트너의 인간은 문자를 그려낸다.

만물의 척도에서 소통의 수단으로

페터 플리트너가 그린 <인체 알파벳>

노성두 | 미술평론가

뉴른베르크 화가 플리트너는 알베르티의 르네상스 회화론이 나온 지 1백년이 지난 다음 철자공부와 인체소묘에 관한 수사적 은유를 회화적 직유로 바꿔 재현했다. 인체는 의미체의 주관적 감성에서 의미소의 객관적 과학으로 발길을 틀었다. 비례의 기준에서 소묘의 척도로 변신했다. 비트루비우스의 자연이 인간을 빚어냈다면, 플리트너의 인간은 문자를 그려낸다.

A는 남자가 서로 의지하며 부둥켜안은 자세다. 남자의 손에 사과가 쥐어 있으니, 아담과 하와로 봐야 한다. 인류의 부모를 철자 책의 첫머리에 둔 것은 씩 자연스럽다. H는 마리아와 요셉의 약혼일까? 그러나 마리아의 방문을 반기는 엘리사벳에 더욱 어울린다. K는 출정을 준비하며 군병의 용기를 북돋는 고대 로마의 지휘관을 흉내낸다. 변론의 자세를 취하는 연사도 같은 자세를 취할 것이다. S는 친구를 등쪽에 걸머진 아틀라스의 노역을, T는 십자가 책형의 비극을 증언한다. X는 괴물 안타이오스의 허리를 분지르는 헤라클레스의 용맹을, Y는 지상의 사건을 굽어보는 아기 천사의 하강과 닮았다. 마지막 Z는 헬레니즘 조각 도이달사스의 아프로디테처럼 신성한 제의적 목욕자세로 꿇어 앉아서 다른 이들을 가리켜 보인다. 관찰자의 이해를 이끄는 책속의 안내역을 맡았다.

알파벳의 기둥을 버틴 인간은 자연일까, 기호일까. 이 그림은 중세적 패턴 복처럼 기호화한 자연의 예술적 재현을 위한 친절한 교본일까, 새로운 상형문자로 즐거이 변신한 자연의 병치일까. 알라누스 압 인술리스의 예언처럼 이 세상이 한 권의 책이라면, 플리트너의 책은 인간, 그리고 인간들로 이뤄졌다.●